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 튼 히 무 장 하 자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191호 【루계 제23143호】 주체99 (2010) 년 7월 10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하였다.

6월 20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93군부대 지휘관강습소를 시찰하시고 평안북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593군부대 지휘관강습소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강습소에서 지휘성원들의 가슴마다에 조선로동당의 군건설사상과 리론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모든 지휘성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습소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지휘성원들이 혁명무력의 골간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더욱 깊이 체득시켜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최근 평안북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이날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6월 19일 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쓸모있는 대형굴착기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창안제작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는 굴착기를 비롯한 더 많은 기계설비들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질좋은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시고 기업소일군들이 실리주의원칙에 맞게 기업소관리운영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6월 20일 핀란드 코민포름통보사 인터네트잡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과 평안북도에 새로 건설된 축구경기장을 돌아보신 소식을 전하였다.

6월 17일 라오스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3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훌륭한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무대에 오른 모든 종목들은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본질적이며 의의있는 생활을 통하여 선군시대 인간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나서는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을 심각하게 내세우고 그것을 사상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훌륭한 교재이라고 하시면서 최상급의 공연을 진행한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거듭 치하하시였다.

네팔신문 《아르판》 6월 18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그이께서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942호 주체99 (2010) 년 7월 8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인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담아 로동당시대의 대걸작품으로 훌륭히 건립되여 천만군민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인민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당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하신 불멸의 령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을 세계 6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뜻깊게 경축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전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그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온 누리에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수많은 나라의 정당, 단체의 저명한 인사들이 그이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적도기네민주당 부총비서, 기네통일진보당 전국정치국 위원인 당중앙위원회 비서와 해당 정당 지도부성원들,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서기장이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를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꼬스따 리까인민전위당 총비서, 뿌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이딸리아변증법적유물론무신론자들의 조직 위원장,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을 비롯한 정계, 사회계의 고위인사들은 담화를 발표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담화에서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조선로동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한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였다고 격찬하였다.

40여성상에 걸치는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당령도사가 있어 오늘 조선로동당은 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물리치며 사회주의길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혁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조선로동당의 당건설경험을 깊이 연구하고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로씨야, 꾸바, 파키스탄, 이란, 리비아, 나이제리아, 베루, 브라질, 스위스, 체스꼬,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6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한달 남짓한 기간 300여차에 걸쳐 집회, 토론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캄보쟈 크메르민주당, 파키스탄인민당, 남아프리카사법 및 헌법발전성, 우간다전국녀성리사회, 브라질자유조국당,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 노르웨이공산당, 범아프리카운동 서기국, 세계평화리사회를 비롯한 정당, 정부, 단체들과 지역 및 국제기구 인사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주체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그때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리념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의지를 밝히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안에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오로지 당의 창건자이신 주석의 구상과 의도, 방식대로 풀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그이를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필승의 당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 세계사회주의운동을 진두에서 이끄는 권위있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하면서 그이의 당령도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네예술 및 문화상은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지난 40여성상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훌륭히 계승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반석같은 토대를 마련하고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를 떨치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력사를 펼쳐놓으신 절세위인의 영웅서사시로 빛나고있다.

실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모든 나라 당건설의 귀감으로 되고있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라오스신문 《꽁탐빠싸손라오》, 네팔신문 《러허쎠》, 에짚트신문 《알 마싸이야》, 나미비아신문 《뉴 이어러》, 민주꽁고신문 《라브니르》, 메히꼬신문 《우니다드 나씨오날》, 영국신문 《더 뉴 워커》, 기네라지오방송을 비롯한 각국의 출판보도물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과 김정일》,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인민적인 당의 진두에 서계시여》 등의 제목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예술과 불멸의 업적을 상세히 전하였다.

캄보쟈신문 《크마애 아마따》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수령이 이룩한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발전시켜나가며 수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건설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우간다신문 《짠 라이즈》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지도사상이 투철한 당, 전당이 일심단결된 당,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으로 건설하시였다.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 사회주의집권당들이 련이어 붕괴될 때 조선로동당이 추호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의 불패성을 만방에 과시할수 있은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여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속에서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자주적 대가 강한 당으로,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실수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한길로 줄기차게 나아가는 강위력한 당으로 되였다.

오스트리아 윈에 있는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 딸따주체철학 및 선군정치연구소조, 쫄롬비아강계주체사상연구소조, 도이췰란드조선협회, 브라질사회주의청년동맹,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인터네트와 블레쩐에 절세위인의 당건설업적을 소개하는 글들을 특집하였다.

에짚트조선친선협회 블레쩐은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지난 46년간은 김정일령도자이시야말로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백승을 떨치시는 희세의 정치가이심을 과시한 나날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이는 비상한 조직동원력과 완강한 실천력, 특출한 창조력, 필승의 신념과 강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드센 배짱으로 혁명과 건설,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정치가이시다.

정녕 혁명적당건설과 활동에서 제기되는 시대적과제들을 빛나게 해결하시고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참다운 본보기를 창조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위력떨치는 조선로동당의 력사와 더불어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혁명투사 오중흡동지 생일 100돐

중앙보고회 진행

【평양 7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혁명투사 오중흡동지 생일 100돐 중앙보고회가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혁명승리의 표대인 붉은기가 펼쳐져있었으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이 걸려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하자!》,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보고회에는 당,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혁명렬사유가족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김영춘동지, 오극렬동지,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김정각동지, 양형섭동지, 김철만동지, 리을설동지와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보고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회는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려는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보고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기술혁신으로 증산의 돌파구 열어간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증산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끼고있다.

오늘의 대고조에서 승리의 비결은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돌파하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식의 착상과 창조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드높은 열의에 넘쳐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최근 몇해동안에 백수십건의 기술혁신안, 합리화안을 받아들여 생산공정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고 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이미 마련되여있는 생산공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조하며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 조직지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려는 혁신적인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일군들은 깊은 사색과 탐구로 타산을 면밀히 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기술발전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련관단위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기술개건과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잘 꾸리고 전자도서관홈페지를 개설하여 인민대학습당과 중앙과학기술통보사를 비롯한 과학기술봉사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콤퓨터봉사와 주문봉사를 통하여 새 기술자료들을 받고있으며 과학기술강연, 강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기술자, 로동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속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자랑할만 한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방대한 급수뽐프장현대화공사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끌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참모부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물보장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작전을 대담하게 세우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급수직장의 전반적인 공정들을 현대화함으로써 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은 질소직장의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대형제란기공정에서 저항을 최대한 작게 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과학기술정보연구실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물전해직장 기술준비실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물전해공정에 대용량조종용 정류기의 원격조종 및 경보체계를 도입하여 그 어떤 조건에서도 끄떡없이 생산을 안전하게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공업기술연구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현행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푸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촉매연구부문의 기술자들은 암모니아합성탑 보수에서 제기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기발한 착상을 내놓아 합성탑촉매를 원상대로 보존하면서도 보수작업을 최단기간내에 끝낼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대담하게 받아들이였다.

동력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여러가지 종류의 대형변압기들에 대한 무부하 및 경부하전력소비를 측정하고 방지대책을 세운것을 비롯하여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늘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널리 받아들이였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합성탑자동온도조절장치를 개발도입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합성탑운영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보수분사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탕크들을 새로 설계하고 개조하여 합성직장의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청정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압축기들을 개조하여 예비기대를 조성해놓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내밀고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련합기업소안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보다 큰 과학기술적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제품생산을 계속 확대

원산시 경공업공장들에서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결의안고 떨쳐나선 원산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과 원산유리병공장,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원산시안의 여러 경공업공장들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시안의 경공업공장 당조직들에서는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갖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이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신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한 원산유리병공장과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현지말씀판철에 떨쳐나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각종 규격의 유리병들과 맵시있는 구두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고있다. 공장들에서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는 한편 생산에 필요한 원료들을 자체로 마련하여 말겨진 과업을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과 원산철제일용품공장, 원산철공생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원산봉화피복공장을 비롯한 시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도 중요지표들에 대한 생산을 적극 다그치는 한편 부산물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소비품의 가지수를 더욱 늘이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당대표자회를 보다 큰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대화학기지에 총공격전의 기상 드높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장 청 일 찍음

력사의 새벽길에 새겨진 거룩한 자욱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오늘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116돐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고결한 한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삼천리강토에 망국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밀려들던 시기인 1894년 7월 10일 만경대에서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의 맏아드님으로 탄생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애국적인 교양을 받으시며 성장하시였다.

고향 만경대에서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민족이 겪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한몸으로 체험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순화학교와 평양숭실중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나라찾을 큰뜻을 키워나가시였다.

주체2(1913)년 봄 평양숭실중학교를 중퇴하시고 직업적인 혁명가로 나서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사상을 투쟁과 생활의 변함없는 신조로 삼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나가시였다.

나라의 독립과 번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원대한 뜻을 가져야 하며 그 뜻을 실현하자면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굴함이 없이 싸워야 한다는 혁명적인생관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 깃들어있는 《지원》의 사상은 김형직선생님께서 한생토록 간직하고계신 삶과 투쟁의 좌우명이였다.

민족자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략을 모색하시면서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조직적력량으로 묶어세우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봉화리로 혁명활동거점을 옮기신 후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시였다.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는것은 당시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였다.

독립운동을 한다고 자처하던 민족주의자들은 사대주의에 물젖어 제힘으로 나라를 독립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외세의존》과 《청원》의 방법으로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였으며 일부 사람들은 개인테로의 방법으로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얼마 안되는 반일단체들도 있었으나 그것은 대중속에 뿌리박지 못한 몇몇 사람들이 망라된 비밀결사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것마저 서로 아무런 련계도 없이 제가끔 흩어져 활동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깊이 통찰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워 민족해방운동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수 있는 혁명조직의 결성을 더는 미룰수 없는 문제로 보시고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핵심을 키우고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져나가시였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시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주체6(1917)년 3월 23일 평양의 학당골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이였다.

조선국민회가 결성됨으로써 모든 반일애국력량의 단합을 이룩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은 옳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후 국민회핵심성원들을 국내 여러 지역과 남만의 넓은 지대, 여러 독립운동단체들과 무장단들에 파견하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높은 뜻 가슴깊이 새겨간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리진명 찍음

사업을 적극 벌려 광범한 군중속에 반일의식을 심어주고 조선국민회의 영향력을 넓혀나가도록 하시였으며 독립운동단체들과 무장단들을 조선국민회가 내세운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 이룩하신 또 하나의 업적이다.

3.1인민봉기당시와 이를 전후한 시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사변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우리 나라 사회계급관계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주목을 돌리시면서 민족해방의 진로를 끊임없이 모색하시였다. 이 과정에 찾아내신 결론이 바로 무산혁명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것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주체8(1919)년 7월 청수동회의에서 무산혁명의 력사적필연성을 론증한데 기초하시여 그해 8월 력사적인 관전회의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 방향전환할데 대한 방침을 선포하시였다. 시대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민족자력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무산대중의 리익을 보장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이 김형직선생님께서 관전회의에서 제시하신 과업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대중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주시는 한편 조선국민회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우시면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조직전개해나가시였다.

만주와 북부국경일대에서의 무산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국내깊이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주체10(1921)년 가을 국내에로 나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사리원, 재령, 은률을 비롯한 황해도일대의 여러 조직들의 활동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시고 무산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청원》이나 《외교》가 아니라 무장활동을 해야 나라를 찾을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새로운 무장활동준비와 무장단들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도 줄기차게 벌려나가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미 있는 무장단체들의 지휘관, 병사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켜 그 대오를 무산혁명을 감당할수 있는 무장력으로 전환시킬것을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독립군 각 부대들에 조선국민회 성원들을 파견하여 무장대안에서 선진사상을 보급하는것과 함께 무기를 구입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무장단들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해 김형직선생님께서 쉬임없이 걸으신 길 그 얼마인지 모른다.

참으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생애는 《지원》의 사상을 지니시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참다운 애국자, 견결한 혁명가의 빛나는 한생이였다.

조국과 민족앞에 이룩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주체의 태양을 받들어올리시여 나라와 민족의 밝은 앞길을 열어놓으신것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열렬한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끝없는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지원》의 사상과 두자루의 권총에 담겨져있는 숭고한 뜻과 리념을 깊이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력사의 새벽길에 높이 추켜드시였던 《지원》의 뜻어린 민족자주의 기치는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천만군민의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으며 선생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과 더불어 빛나는 우리 혁명의 총대력사는 계속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김일성민족의 무궁번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용진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에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주체58(1969)년 6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신 기회에 군대내 정치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혁명무력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이며 우리 인민군대를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드놀지 않는 불패의 강군으로 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라고, 이 사업을 잘해야 우리 인민군대가 위대한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할수 있고 군건설을 수령님의 의도대로 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자면 군인들속에서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 교양을 강화하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군건설령도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도 통이 크고 폭이 넓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첫째도 둘째도 훈련!

주체62(1973)년 8월 어느날 한 해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파도사나운 날 몰소 어뢰정에 오르시여 해병들의 항해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자신의 안녕을 위해 어뢰정이 최대속도를 내지 않고있다는것을 아시고 전투훈련은 실전과 같은 정황속에서 하여야 한다고, 원쑤를 족치는 심정으로 최대의 속력을 내여 대담하게 돌격하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해상훈련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주체전법을 익히는데 기본을 둘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해병들의 항해훈련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바다를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서는 훈련을 강화하여 일당백의 장수힘을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기본열쇠는 훈련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군대에서는 첫째도 훈련, 둘째도 훈련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일당백의 장수힘은 시간을 아껴가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데 있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은 전군에 백두의 훈련열풍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게 한 고무적기치였다.

유능한 군사지휘관들로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대학을 찾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에 갖추어진 훌륭한 교육시설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저 대학에서 작전전술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작전전술교육은 현대전을 능숙히 조직지휘할수 있도록 주체전법을 깊이 연구체득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학생들속에 주체전법을 깊이 연구체득시켜야 그들이 유능한 군사지휘판으로 준비될수 있으며 인민군대의 전반적싸움준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군사전법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기본교재는 군사문제와 관련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라고 하시면서 교원들과 학생들이 군사문제와 관련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교시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학습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대학을 군사간부양성기지로 더 잘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리금분

평범한 천생산기지에 깃든 사랑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끝없는 심혈을 기울이신 백두산위인들의 은혜로운 사랑은 순천직물공장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만대에 길이 빛날 투쟁과업적으로 수놓아진 영광의 력사이며 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생활과 투쟁의 불멸의 교과서입니다.》

주체47(1958)년 9월 어느날이였다.

순천시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기 위해 깊이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일떠선지 얼마 안되는 순천직물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에 오시는 길로 로동자들이 일하는 수수한 작업장에 먼저 들리시여 자기 힘, 자기 기술로 천을 짜는 로동자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직포공에게 하루에 천을 얼마나 짤수 있는가고 물으시며 그와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러시고는 작업현장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였다.

작업반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며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직포직장에서 수직기로 은반견을 짜고 조박천으로 방석과 베개모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며 초물작업반에서 여러가지 초물제품을 만들고있는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앞으로 공장을 확장하여 천도 많이 짜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제품들도 생산해야 한다고 고무해주시였다.

현장을 다 돌아보고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의 책임일군들과 또다시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 생산계획을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공장의 규모를 크게 하고 력직기를 100대이상 설치하여 천을 더 많이 짤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며 유휴자재를 적극 찾아내여 리용할데 대한 문제,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가정부인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문제,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 공장관리운영에서 실리를 보장하며 생산을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옷을 해입히겠는가를 생각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끝이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을 다녀가신 후 생산공정을 새로 꾸리는데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보내주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고귀한 사랑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해 더욱 뜨겁게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을 개건하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보장해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건설이 끝났을 때에는 친히 종업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모든것이 부족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진정 백두산위인들의 고귀한 믿음과 사랑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지칠줄 모르는 힘과 지혜를 안겨주는 원천이였다.

본사기자 김준혁

현대과학기술과 일군

오늘 우리 당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최대의 마력을 내여 일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자면 높은 혁명성과 불타는 애국적헌신성을 지니는것과 함께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실력가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인것만큼 일군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일군들은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당정책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려야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일터마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될수 있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자면 실력이 높아야 한다. 오늘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이 기본이고 첫째가는 실력이라면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는것은 필수적인 제2의 실력이다. 당정책을 환히 꿰들고 과학기술을 잘 아는 일군이 대고조진군의 당당한 기수가 될수 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오늘날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날로 더욱 높아지고있다. 일군들이 기성의 지식과 경험에만 매달려가지고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제대로 전개해나갈수 없다. 현대과학기술지식수준이 높은 일군이라야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을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높은 실적으로 받들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날 위대한 장군님과 뜻을 같이하는 일군은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 실력가형의 일군이다.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끝까지 보답하겠다는 열의는 높아도 과학기술지식이 안받침되지 못하면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수 없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련관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존생산공정들에 대한 전면적인 신설사업을 진행하였을뿐아니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CNC화를 실현하여 공장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킨 경험은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현대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전진할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과학기술지식은 당과 수령을 받드는 창조적능력이며 대고조시대 일군의 진가를 규정하는 척도이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나를 가르쳐주시면 열, 백을 헤아리고 당에서 벽을 올리면 강산을 울리는 혁명적기풍으로 일판을 크게 벌리고 모든 사업을 조직집행해나가는 실력가형의 일군이 되기 위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은 사업실적으로 받들어나가는 일군이 장군님의 참된 혁명전사이다.

일군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은 혁명의 송풍기적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의 송풍기, 가속기가 되는것은 대고조시대 일군들의 중요한 사명이다.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면 첫째도 둘째도 실력이 높아야 한다. 일군들의 실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과학기술지식은 송풍기의 윤활유와 같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현대과학기술 수준이 높은 일군이 대중과 한덩어리가 될수 있다. 대중속에는 현시대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민감하고 과학과 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일군들이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대중과의 교감을 잘할수 없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시킬수 없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떠밀어주자고 하여도 현대과학기술을 알아야 하며 생산자대중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대중적기술혁신을 일으키자고 하여도 그들과 호흡을 같이할수 있는 실력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일군들이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지니고 대중이 일하는 현장에서 중심고리를 제때에 포착하고 기술적으로 걸린 문제들도 찾아내며 기발한 착상과 묘술, 방법론을 제시해줄줄 알아야 대중이 일군들의 실력에 탄복하여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

오늘의 시대는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릴것을 요구하고있다.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돌파전에서 혁명의 송풍기적역할을 다해나가자면 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일군들이 첨단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할 때 모든 부문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쥘것을 바라는 우리 당의 요구를 앞장에서 실현해나갈수 있다. 대중의 높은 정신력에 일군들의 실력이 안받침되면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지니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대고조진군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윤철희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개성시 립한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새 조국건설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자료들을 가지고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독보와 해설담화, 연구발표모임 등을 진행하여 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고있다.

얼마전 제10작업반에 나간 리당의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농장원들에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가지고 감명깊게 들려주었다.

대사하치기전투와 홍기하전투를 비롯하여 항일전의 간고한 나날 이르는 곳마다에서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시여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 명령지시를 어떤 환경속에서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은 대중의 가슴마다에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을 더욱 굳게 심어주었다.

로농통신원 류승균

당보를 통한 교양사업

토산군 하남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당보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보에 실린 백두산위인들의 위대성에 대한 생동한 자료들을 가지고 현실과 결부하여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짜고들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한 작업반에 내려간 리당일군은 당보에 실린 위대성기사를 독보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리상을 활짝 꽃피워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끊임없는 로고와 크나큰 은정속에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난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그러면서 경공업과 농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어보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힘있는 정치사업에 고무된 농장원들은 그날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오늘 이곳 농장원들은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리상을 꽃피우는 길에 한몸바쳐갈 굳은 결심을 안고 포전에 성실한 애국의 땀을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윤정실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본받아 우리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열혈투사가 되자

중앙보고회에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의 보고

동지들!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와 투쟁로정우에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모시고 결사옹위의 한생을 빛나게 수놓아온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삶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창건 65돐을 우리 당력사와 조국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항일혁명투사 오중흡동지의 생일 100돐을 기념하고있습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항일대전의 폭풍우속에서 조선혁명의 심장이며 승리의 기치인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운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오중흡동지의 빛나는 생애와 투쟁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며 투사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우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드는 견결한 혁명가, 수령결사옹위의 열혈투사로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를 더욱 뜨겁게 간직하게 됩니다.

오중흡동지는 우리 나라에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시기인 1910년 7월 10일 함경북도 온성군 세선리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여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가친척들과 함께 살길을 찾아 낯설은 이역땅으로 이주하여간 오중흡동지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망국노의 설움을 뼈아프게 체험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이 나날에 일찍부터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게 된 오중흡동지는 반일애국의 뜻을 품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오중흡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불굴의 혁명투사로 자라났으며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의 직무를 거쳐 련대장의 중책을 지니고 조국의 해방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사에 빛나는 위훈의 자욱을 아로새기였습니다.

오중흡동지의 한생은 걸음마다 사선의 고비를 헤쳐야 했던 항일전의 나날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바쳐 보위함으로써 혁명전사는 자기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모셔야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보여준 주체형의 혁명가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며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니고 사령관동지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군대지휘관의 본보기로 빛나는 영웅적인 한생이였습니다.

오중흡동지는 간고하고 준엄했던 항일무장투쟁시기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의 운명,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으며 사령관동지를 결사보위하는데서 특출한 공적을 세웠습니다.

오중흡동지가 주체19(1930)년 가을 그처럼 흠모하여 마지않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것은 혁명가로서 투철한 수령관을 지니게 된 뜻깊은 계기였습니다.

조선혁명의 전반적문제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명철한 분석과 판단을 내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도탄에 빠진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고 이끌어주실 겨레의 운명이시고 혁명의 태양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한 오중흡동지의 가슴속에는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충직하게 받들고 결사옹위해나갈 억척같은 신념이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하기에 오중흡동지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신변안전을 지켜드리는것을 혁명전사의 첫째가는 의무로 간주하였으며 혁명투쟁의 전기간 사령부의 안전을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고 방패가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오중흡은 나에게 있어서 혁명전우이고 동지인 동시에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습니다.

오중흡동지는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지 않고 뛰여들었으며 그 어떤 간고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나 행군길에서나 항상 사령부의 안전부터 먼저 생각한 오중흡동지는 만강부근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적탄이 비발치는 속에서 전투를 지휘하시는 사령관동지를 한몸으로 막아나선것을 비롯하여 단두산전투 등 수많은 전투들에서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여 혁명의 사령부를 억척같이 보위하였습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더욱 굳게 다져지고 공고화된 오중흡동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울리시는 총소리까지도 알아맞추는 끝없이 진실하고 열렬한것이였습니다.

주체28(1939)년 3월 초순 사령부와 떨어져 활동하던 오중흡동지는 사령부가 위치한 삼수골부근에서 총소리가 울려오자 《이것은 사령관동지께서 울리신 총소리요. 불과 1개 중대의 력량밖에 안되는 사령부가 로출되여 적들의 포위에 들수 있소. 동무들,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해야 하오!》라고 하면서 부대를 이끌고 사령부가 있는 곳을 향해 앞장서 달려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홍두산전투때에도 그는 적들이 사령부쪽으로 밀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사령부를 보위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신변안전을 위해 바친 오중흡동지의 희생성과 충실성,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우리 혁명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더욱 높이 발휘되였습니다.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100여일간의 고난의 행군은 력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행군로정이였고 조선혁명가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뜨겁게 분출된 영웅적인 투쟁행로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의 첫 시기부터 결사적인 후위전을 벌려 사령부를 보위한 오중흡동지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집단행동으로부터 분산행동으로 넘어가 사령부와 헤여지게 되자 사령부에 위험이 미치지 않게 하려고 자진하여 자기 련대를 사령부로 가장하고 험준한 롱강산줄기와 장백산줄기를 누비면서 적들을 유인하였습니다.

걸음걸음 엄혹한 강추위와 굶주림이 뒤따르고 적들과 치렬한 싸움을 벌리며 한치한치 혈로를 열어나가야 했지만 오중흡동지는 사령부를 보위하는것은 곧 조선혁명의 심장을 보위하는것임을 잊지 말자, 모두다 사령부를 지켜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나팔소리를 더 높이 울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사령부로 쏠리는 적들을 자기 련대에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험로를 택하여 온갖 고생을 다 겪은 오중흡동지는 적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천신만고하여 톺아온 길을 수십리나 되돌아가서 적의 숙영지를 쳐서 기어이 적들을 다시 뒤에 달고왔습니다.

오중흡동지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실성, 혁명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안고 싸워온 혁명투사였습니다.

참으로 피어린 항일의 혈전만리길에서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낸 오중흡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영웅적투쟁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안녕하시여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실수 있었으며 바로 여기에 항일혁명투사 오중흡동지가 조선혁명사에 이룩한 귀중한 공적이 있습니다.

오중흡동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로선, 명령지시를 무조건 관철한데서도 높이 발현되였습니다.

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로선, 명령과 지시를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한것은 오중흡동지가 지닌 고귀한 사상정신적 특질이였습니다.

혁명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만이 조선혁명의 유일한 진로라는 것을 신념으로 체득한 오중흡동지는 사령관동지의 군사작전방침들을 법으로 여기고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였으며 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로선에 배치되는 현상과는 맹호가 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백두산지구에로 진출할데 대한 사령부의 지시를 받고도 그 집행을 태공하는 일부 배타주의자들의 정체를 제때에 간파하고 격분을 금치 못하며 원칙적인 투쟁을 벌린 사실과 유격전의 기본원칙과 습격전의 초보적요구도 모르고 공명심에 사로잡혀 6도구전투를 벌린 림가의 죄행을 폭로하며 날카롭게 투쟁한 사실들은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지니고 사령부의 사상과 로선을 지켜싸운 오중흡동지의 결사옹위정신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오중흡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지시를 크나큰 신임의 표시로, 더없이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1분 1초도 어기지 않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쉬운 일감을 맡았을 때보다 어려운 과업을 받았을 때 더 기뻐한 진짜배기 혁명가였습니다.

국내진공작전을 구상하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수백벌의 군복과 식량을 해결할데 대한 무거운 과업을 받았을 때에도 오중흡동지는 지체함이 없이 불과 30여명의 성원들을 데리고 온갖 어려움과 간난신고를 이겨내며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끝내 제기일에 후방물자들을 준비함으로써 사령관동지의 조국진군방침을 관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오중흡동지는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포착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앞장서서 끌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관철하였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전의 나날에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되면 오중흡동지에게 그 일감을 맡기군 하시였고 그에게 과업을 주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였습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오중흡동지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혁명적기풍은 오늘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천만군민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숭고한 귀감으로 되고있습니다.

오중흡동지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동지들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지닌 열혈의 인간, 견실한 혁명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십년동안 혁명을 해오면서 오중흡만큼 조직성이 강하고 규률성이 강한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하였다고 하시며 그의 혁명가적풍모에 대하여 뜨겁게 추억하군 하시였습니다.

오중흡동지는 혁명조직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높은 조직관념을 지니고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령부와의 련계를 맺는 규률과 질서를 생명처럼 여기고 드팀없이 지켰습니다.

혁명앞에서는 무한히 고지식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지휘관이였지만 생활에서는 언제나 쾌활하고 락천적이였던 오중흡동지는 늘 대원들과 한가마밥을 먹고 잠자리도 같이하면서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동지들과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였으며 지휘관과 병사, 유격대와 인민과의 혈연적관계를 두터이 하였습니다.

오중흡동지는 자신뿐아니라 온 가족을 혁명화하여 일가모두를 손에 총을 잡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혁명의 길에 나서게 하였으며 원쑤놈들에게 사랑하는 안해와 딸, 누이동생이 무참히 학살되였을 때에도 혁명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 억세게 투쟁하였습니다.

사령관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희생성,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 전투와 생활의 모든 면에서의 이신작칙, 겸손성과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인정미 등 혁명군대지휘관으로서의 고상한 품성으로 하여 오중흡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7련대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빛나는 위훈을 떨칠수 있었습니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게 진심으로 매혹되여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으며 그길에 우리 혁명의 승리도 자신의 운명도 미래도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여겨온것, 바로 이것이 오중흡동지의 한생의 총화입니다.

참으로 오중흡동지는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려는 결사옹위정신으로 육탄이 되여 사령관동지의 신변안전을 지켜싸움으로써 조국과 민족,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은 참다운 혁명투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동지적 사랑과 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일혁명의 나날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한 오중흡동지의 결사옹위정신과 투쟁업적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회상하시였으며 오중흡7련대는 적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도발로부터 사령부를 철통같이 호위해온 방탄벽이였고 난공불락의 성새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남달리 총명하고 높은 혁명열의로 불타던 오중흡동지의 성장과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를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열렬한 혁명투사로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중흡은 소리는 작지만 혁명투쟁사에 남긴 발자취가 크고 이루어놓은 업적이 크다고 하시며 투사의 혁명생애를 값높이 빛내여주시였습니다.

오중흡동지의 영웅적생애는 혁명선배들을 더없이 존경하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실성을 지니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라면 그 어떤 위험과 곤난도 무릅쓰고 끌까지 관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인 오중흡동지에 대하여 각별한 정을 품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우리 혁명의 전렬에,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중흡동지를 우리 군대와 인민이 따라배워야 할 주체형의 혁명가의 훌륭한 전형으로 내세우시고 전군이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벌리도록 하시였으며 그의 혁명생애와 투쟁업적을 담은 영화와 노래, 교양자료를 만들어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투사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혁명렬사유가족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투사가 남기고간 딸자식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나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정녕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동지적사랑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사 오중흡동지는 수령결사옹위의 참다운 전위투사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습니다.

한생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의 운명,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목숨으로 옹위한 오중흡동지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결사관철의 투쟁기풍, 고결한 혁명가적풍모는 노래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와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억속에 길이 남아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입니다.

동지들!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열백번 바뀌여도 변할수 없는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혁명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민족번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 우리앞에는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어버이수령님의 념원대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선렬들의 모범을 따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은 오중흡동지를 비롯한 혁명선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본받아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하는 참다운 선군혁명동지, 열혈투사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은 말로써가 아니라 혁명실천으로, 당정책결사관철에서 높이 발휘되여야 합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오중흡7련대가 됨으로써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정치군사적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무모한 반공화국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며 적들의 정치군사적도발과 침략행위, 자주권유린행위에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며 당창건 65돐을 김일성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절세의 위인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으며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과 혁명대오의 위력한 일심단결이 있는 한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많은 골재를 생산한다

평양해운사업소에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평양해운사업소는 강하천운수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단위이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처럼 중요한 일을 맡아하면서 최근에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골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우리 조국,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총진군의 나팔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고있습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최근 두달사이에만도 골재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키였다.

이 성과속에는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설비들의 가동률을 부쩍 높이면서 골재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가고있는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

사업소앞에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많은 량의 골재를 생산보장할데 대한 과제가 맡겨졌을 때 생산조건은 그리 좋지 못하였다. 운수3직장만 놓고보아도 오랜 기간 사용한 굴착선을 비롯한 준첩설비들의 부속품보장조건이 어려워 가동률을 높이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리흥록, 김해온동무를 비롯한 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비상한 열의를 안고 달라붙었다.

지난 기간 제힘을 믿고 떨쳐나 사업소를 번듯하게 꾸리던 일본새로 오늘의 총진군길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갈 때 불가능이란 없다는것이 이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의지였던것이다.

종업원들모두가 굴착선과 끌배, 부선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설비정비와 보수작업에 달라붙었다. 낮에 밤을 이어 벌어진 전투의 나날들에 종업원들의 위훈담은 수많이 꽃펴났다.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한 굴착선의 지지로라와 연유뽐프가 불비하여 수리작업이 제기되였을 때에도 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해당 단위에 달려가 필요한 부속품도 해결하여 배수리시간을 예정보다 앞당김으로써 골재생산을 늘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굴착선 347호의 가동률을 높여야 할 때에도 예비기판의 가동준비를 비롯한 면밀한 대책을 세워 직장적으로 하루에 천여㎥에 달하는 골재생산실적을 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뚜렷한 위훈의 자욱을 수놓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맡은 일에 헌신하는 이들의 로력투쟁에 의하여 골재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전기절약장치를 받아들여

고원철도분국에서

고원철도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애국의 한마음으로 전기절약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 특히 자체의 실정에 맞게 개발, 도입한 전기절약장치가 주목을 끌고있다.

고원철도영예일군공장 로동자 리히근동무가 제작한 이 장치는 순시전력소비가 기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여 전력소비단위들에서 제정된 하루 전력소비량을 철저히 지킬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각 소비단위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미리 정해놓은 시간마다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교차생산조직을 대신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 장치는 어디에나 흔한 우리의 자재로 값눅게, 손쉽게 만들수 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실리가 있다.

지금 이 전기절약장치는 분국의 산하단위들에 널리 도입되여 전력소비자들의 자각성을 높여주고 분국전반의 전력공급망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

분국의 대부분 단위들에 이 장치를 도입하여 전력소비량을 종합, 분석해본데 의하면 6월 한달기간에만도 장치를 도입하기 전보다 수십만kWh의 전력이 절약되였다고 한다.

최룡수동무를 비롯한 분국의 일군들은 이룩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이 장치를 모든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김충성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인민소비품생산에서의 혁신적성과로!

합격도장은 인민들이 찍어야 한다

평양구두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앞두고 평양구두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좋고 맵시있는 구두를 생산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공동구호를 받아안은 날 저녁이였다. 어떻게 하면 한컬레의 구두를 생산해도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좋고 맵시있는 구두를 생산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초저녁부터 진행된 공장일군들의 모임은 밤깊도록 끝날줄 몰랐다. 모임에서는 일군들이 책임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기술자들이 도안설계에서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이 발휘할데 대한 문제도 제기되였다.

그때 기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물론 방금 제기된 문제들도 중요하다. 그러나 질좋고 맵시있는 구두를 생산하자면 일군들도 종업원들도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는 종업원들이 빠짐없이 참가하는 기술혁신경기를 조직할것을 제기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 적극 지지하였다. 그리하여 그날밤 모임에서는 당창건 65돐까지 진행할 기술혁신경기요강이 작성되였다.

이튿날부터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참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구두도안을 비롯한 한건이상의 기술혁신안을 내놓고 그것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혁신경기가 진행되였다. 며칠사이에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남녀, 아동구두 도안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술혁신안, 합리화안들이 제기되였다.

일군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특색있는 구두도안만도 수십건이나 되였다.

일부 일군들은 그 구두도안들을 설계에 넘기자고 하였다. 그때 공장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인민들이 정말 좋아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합격도장은 인민들이 찍어야 합니다.》

그 말에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옳다. 인민들이 좋아해야 하며 바로 인민들이 합격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것은 경공업부문에서 일하는 우리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되여야 한다.)

다음날부터 공장에서는 기술혁신경기에서 제기된 우수한 구두도안들을 하나하나 인민들의 《심의》를 받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였다.

실장 강창옥동무를 비롯한 기술준비실의 설계원들은 수도 시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면서도 우리 인민의 체질에 맞으며 인민들의 요구가 철저히 반영된 질좋고 맵시있는 구두형태를 완성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없이 뛰였다.

도안설계원들인 박경숙, 리은주동무들은 청년들이 좋아하고 로인들과 중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두형태와 계절에 따르는 색갈 등을 찾아내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일이다싶이 백화점들과 신발상점 그리고 동, 인민반들에 나가 도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특히 그들은 녀자구두형태를 새롭게 우리 식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각별한 품을 들이였다.

신골과 구두창설계원들인 김성문, 조혜련, 박옥란동무들도 우리 인민의 체질에 맞는 신골과 구두창을 새롭게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하루일이 끝나면 사람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가족들과 밤깊도록 론쟁을 벌리기도 하였다.

기술준비실에서 이렇게 창조적사색과 탐구정신을 발휘하여 구두도안설계를 하나하나 완성해나갈 때 실험실의 기술자들은 구두제작에 쓰이는 풀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인민에 대한 이렇듯 뜨거운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공장에서는 얼마후 시제품생산에 들어갔다.

지난 5월 녀자구두 17종, 남자구두 9종에 대한 시제품이 나왔을 때였다. 여러가지 색갈과 새로운 형태로 제작된 시제품구두를 보며 누구나 눈맛이 있고 맵시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생산에 넘기자고 하였다.

그러나 공장의 한 일군은 머리를 저었다.

《이 구두들을 인민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리고 인민들이 합격도장을 찍으면 종전의 생산공정을 고칩시다.》

그리하여 그 시제품구두들은 다시 인민들의 《심의》를 받게 되였다. 평양구두공장에서 생산한 시제품구두를 본 사람들은 구두가 가벼우면서도 맵시있고 형태가 여러가지로 달라졌다고 좋아하였다.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공장에서는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새롭게 개발한 구두생산공정을 꾸리는것과 함께 당창건 65돐까지 매달 남녀구두, 아동구두품종을 늘여갈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좋고 맵시있는 구두를 더 많이!

인민을 위한 이런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지금 평양구두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은 구두생산에서 날에날마다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로주봉

언제나 그 날을 안고

신의주법랑철기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나라의 경공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신의주법랑철기공장을 찾았다. 공장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인민들에게 더 좋은 법랑철기를 많이 보내주기 위한 투쟁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우리에게 공장의 당일군인 류종갑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공장종업원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1월이 간직되여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못 잊을 9년전 1월의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외국방문의 길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공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질좋은 각종 법랑그릇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여주실 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전화의 나날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며 공장터전을 잡아주시고 생산설비도 갖추어주시였으며 전선에서 병사들을 소환하여 법랑철기기술자들을 특별히 양성하게 해주시였을 뿐아니라 전후 뜻깊은 생신날에 첫 법랑철기제품을 보아주시면서 공장이름을 신의주법랑철기공장으로 달아주신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그대로 로동자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선풍기와 배풍기를 보내주시고 방열복과 작업복까지 보내주시며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법랑철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안겨줄수 있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1월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찾으시여 인민들이 좋아하는 법랑철기를 더욱 쓸모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 방도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세찬 격정의 파도가 일렁이였다.

그날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1월이 소중히 자리잡았다.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자는 울해공동사설에 접했을 때 이들은 달아오르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공장에서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법랑철기의 가지수를 더 늘이고 우리 인민의 기호와 감정에 맞는 여러가지 그림무늬들을 아름답게 새겨넣기 위해 누구나 노력하였다. 새롭게 착상한 하나의 무늬장식도안을 놓고도 여러차례의 토론을 거듭했고 제품에 한점의 티라도 있을세라 뜨거운 정성을 기울이였다.

몇달전 어느날, 퇴근길에 올랐던 소성3직장의 윤정심동무가 한밤중에 다시 공장에 달려나와 직장장 한종환동무를 찾았다.

《이 도안을 좀 봐주십시오.》

도안에는 물속을 헤치며 꼬리치는 잉어가 생동하게 그려져있었다. 법랑소랭이에 새겨진 잉어문양은 이렇게 생겨난것이였다.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늘어난 제품의 가지수와 량, 여러가지 아름다운 문양들…

하지만 이들은 만족을 모른다. 언제나 영광의 그날에 살며 더 높은 성과를 안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뗏뗏이 들어서기 위해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질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삼일포특산물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영광의 일터에 넘치는 드높은 열정

덕천일반식료공장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지지도단위를 잘 꾸리고 빛내여나가는것은 당과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덕천일반식료공장의 모습은 볼수록 마음이 상쾌해진다. 지방산업공장의 특성에 맞게 산뜻하게 건설된 생산건물들과 현대적인 생산공정들, 곳곳에 꾸려놓은 휴식장소들이며 양어못 등은 구내를 둘러싼 질은 록음과 어울려 마치 한폭의 그림처럼 느껴진다. 정갈한 공장의 모습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를 사랑하고 더욱 빛내여가려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깨끗한 마음이 그대로 비껴있다.

최근년간 그들은 생산공정과 건물들을 개건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이악하게 투쟁하였다. 처음 일판을 벌려놓았을때 건설자재도 부족하였고 대부분의 로력이 가정부인들이여서 건설로력을 보장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영광의 일터를 자기의 힘, 자기의 손으로 꾸려가려는 종업원들의 열의는 참으로 뜨거웠다.

어느날 구내를 돌아보던 공장일군인 김증녀동무는 병직장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하루일을 끝낸 직장로동자들이 한장의 도면을 펼쳐놓고 열띤 토의를 하고있었다.

개건전투를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해내자고 아글타글 애쓰는 그들의 모습앞에서 일군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그들에게 다가간 김증녀동무는 작업반장 김원일동무에게 이렇게 물었다.

《힘이 들지요?》

그러자 작업반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영광의 일터를 더 훌륭히 꾸린다고 생각하니 보람만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그들만이 아닌 공장종업원들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그런 마음을 안고 병직장 로동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작업현장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능률높은 반죽기를 비롯한 설비들과 여러가지 형타들을 자체의 힘으로 창안제작할 때에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가슴속에는 자기들의 일터에 어려있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갈 마음이 꽉 차있었다.

오늘 공장종업원들은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일념안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가고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려는 그들의 혁명적의지는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본사기자

우리 군대는 《천안》 호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유익하다면 회담의 형식과 방법에 구애되지 않을것이다

조미군부장령급회담 우리측 단장 미군측에 회답통지문 발송

【평양 7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지난 6월 26일 미군측은 《천안》 호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여왔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함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리명박역적패당은 《천안》 호침몰사건이 정전협정과 관련한 문제라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우리의 현실성있는 제안을 끝까지 거부해나서고있다.

한편 미군측은 우리측에 《비극적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미군부장령급회담을 가질것을 거듭 요청하여왔다.

이와 관련하여 조미군부장령급회담 우리측 단장은 9일 미군측에 다음과 같은 회답통지문을 보내였다.

우리측은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회담의 형식과 방법에 구애되지 않을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를 문제해결의 최선의 방도로 간주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아량있는 제안을 반대하고있는 조건에서 조미군부장령급회담에서 《천안》 호사건을 론의하자는 미군측의 제의에 류의하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먼저 조미군부장령급회담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대좌급실무접촉을 2010년 7월 13일 10시에 판문점에서 가질것을 수정제의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러한 발기는 《천안》 호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공명정대하게 밝히려는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미군측은 진심으로 《천안》 호사건을 해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우리 군대의 선의와 아량이 담긴 제의를 무겁게 대하여야 할것이다.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 가극 《홍루몽》 공연

베이징에서 또다시 성황리에 진행

【베이징 7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 가극 《홍루몽》 공연이 중국문화부와 수도시민들의 절절한 요청에 의하여 5일부터 7일까지 베이징에서 또다시 진행되였다.

공연장소인 국가대극원은 가극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련일 초만원을 이루었다.

가극의 세계에 완전히 심취된 관중은 장면이 바뀔 때마다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공연이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중국문화부 부국장 리홍은 가극 《홍루몽》이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가극 《홍루몽》은 대본도 잘되고 음악과 무용도 나무랄데 없다.

공연을 세번씩이나 보았는데 매번 눈물이 나오는것을 참을수 없었다.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현대적인 기술기재를 리용하여 무대효과만 추구하고있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조선배우들은 높은 기량과 연기로 관중을 매혹시키고있다.

그들이 보여준 예술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된다.

중국의 고전작품을 가극으로 창조한 조선의 예술앞에 머리가 숙어진다.

피바다가극단의 이번 중국방문공연은 중조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두 나라사이의 문화교류를 촉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국가대극원 원장 진평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극 《홍루몽》 공연은 국가대극원의 공연일정관례를 깨뜨렸다.

다음해 상반년까지 일정이 빈틈없이 맞물려있어 무대를 낼수 없는 조건이였지만 국가대극원에서는 피바다가극단의 공연을 특례로 성사시켰다.

조선판가극 《홍루몽》 공연은 보면 볼수록 놀랍기만 하다.

형언할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다.

울림이 섬세한 성악, 관현악의 수준이 매우 높다.

고상하고 우아하면서도 황홀한 무용과 무대미술로 하여 마치 꿈세계에 들어선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처럼 완전무결한 가극, 진정한 예술작품은 오직 조선에서만 창조될수 있다.

조선판가극 《홍루몽》은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할수 있다.

한편 중국의 여러 TV방송과 《베이징일보》, 《신경보》를 비롯한 신문들은 피바다가극단의 베이징도착과 공연소식, 관중의 열화같은 반향 등을 대대적으로 소개하였다.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49돐에 즈음하여

연회진행

【평양 7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49돐에 즈음하여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에서는 9일 옥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최창식보건상, 김성기, 구본태, 량학순, 한철, 전영진, 전춘식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최창식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주은래총리동지께서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심으로써 두 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관계를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법적토대를 가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두 나라가 조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호상 지지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고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온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중국인민이 앞으로도 존경하는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류홍재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조약체결후 두 나라가 호상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적극 진행하여 중조친선관계발전과 조선반도,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는 지난 5월 호금도총서기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시여 중국당과 정부,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호금도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중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중국홍십자회대표단 귀국

【평양 7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학림나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홍십자회대표단이 9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이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뜨거운 사랑과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황주군제3료양소 소장 김하동무와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료일군은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의료봉사사업의 직접적담당자입니다.》

황주군 읍에서 약 35리정도 가느라면 청룡리의 풍치좋은 곳에 아담하게 자리잡고있는 희한한 건물들을 보게 된다. 그 건물들이 바로 황주군제3료양소 건물들이다.

료양생들에 대한 치료사업과 생활조건보장을 잘하여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고있는 이곳 료양소소장 김하동무와 종업원들에게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많다.

바치는 정성이 그대로 행복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료양소에 30대의 젊은 새 소장이 배치되여왔다. 그가 바로 어느 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던 김하동무였다.

김하동무가 소장사업을 갓 시작한 어느날이였다. 한 료양생이 갑자기 소화장애로 몹시 아파하는것이였다. 료양생의 병상태를 알아보고 그를 잠시 안정시킨 김하동무는 급히 문밖을 나섰다. 잠시후 그는 우유를 들고 들어섰다. 그리고는 환자의 입에 우유를 떠넣어주었다. …

며칠후 완쾌된 환자는 료양소장의 손목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였다. 여러날동안 곁을 떠나지 않고 지성을 다해온 소장이 더없이 고마와서였다.

의사 김복남, 강철호, 간호원 박윤미동무들을 비롯하여 온 료양소가 료양생을 위하여 그렇게 정성을 다하였다. 료양생들에게 필요한 약재라면 수백리길도 마다하지 않았고 깊은 수림속의 아찔한 잣나무에 올라 잣을 따서 필요한 영양식사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낮과 밤이 따로없이 료양소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료양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자기들의 온갖 정성을 다 바친 소장 김하동무와 의사, 간호원, 종업원들의 불같은 노력이 있어 료양생들은 건강한 몸으로 자기 맡은 초소로, 위훈을 부르는 정든 일터로 떠나갔다.

그러한 료양생들을 바래워주는것이 이곳 의사, 간호원, 종업원들에게는 더없는 행복이였다.

의료일군의 본분을 지켜

료양소주변의 풍치에 어울리게 번듯하게 일떠선 건물들과 양어장, 태양열온실, 오락장들…

그 하나하나에 이곳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진한 땀이 슴배여있다.

온 나라가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때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자체의 힘으로 치료기지와 후방기지를 새로 꾸리는 일은 헐치 않았다.

낡은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 건물을 지을 때였다. 김하동무와 종업원들은 150여리 떨어진 곳에서 수백t에 달하는 세멘트와 모래를 실어들였다. 그리고 료양생들에게 더 좋은 치료조건,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밤을 밝혀가며 새 집을 짓고 태양열온실을 건설하였다.

료양소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도 떨쳐나섰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료양소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하여 애쓴 이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김하동무와 김일철, 민옥희, 윤명화동무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연건평이 수백㎡나 되는 료양생들의 숙소와 사무실건물을 번듯하게 일떠세우고 료양소주변에 1 000그루의 감나무를 심어 주변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였다. 그리고 수백㎡의 양어장을 만들어 물고기를 길러내고 태양열온실에서 많은 온실남새를 키워 료양생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자체로 150여마리의 염소와 토끼, 60여마리의 돼지와 소 등 축산토대도 튼튼히 마련하여 료양생들의 식생활에 큰 도움을 줄수 있게 하였다.

인간생명을 책임진 기사인 동시에 료양생들의 친혈육이 되여야 한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곳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보건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성실한 도로관리원

금야군 흥평리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리의 곳곳으로 뻗어간 미끈한 도로를 두고 감탄한다.

정연하게 세워져있는 길표식들, 잘 정리된 길들과 도로량옆의 산뜻한 잔디들과 푸르른 나무들…

견고하고 문화성있게 정리되여있는 리의 도로들은 이곳 도로관리원 신창국동무가 바쳐가는 헌신의 마음을 엿보게 한다.

궂은날, 마른날 늘 한본새로 일하는 그의 열정이 도로의 한치한치에 그대로 깃들어있다.

이른아침이면 마을에서 제일 먼저 일손을 잡고 도로관리에 애국의 땀을 바치는 사람, 리의 도로상태를 손금보듯 꿰들고있으면서 사소한 빈틈이라도 있을세라 공구를 들고 하루에도 리안의 곳곳을 쉬임없이 걷고걸으며 불비한 개소들을 깨끗이 고쳐놓고야 하루일을 끝내군 하는 사람이 바로 신창국동무이다.

그를 두고 이곳을 지나는 운전사들은 성실한 도로관리원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로농통신원 최만열

부당한 궤변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의 범죄적인 《원칙고수》론을 해부함

북남관계파국과 대내외정책파탄으로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피뢰패당은 속죄하기는커녕 민심과 여론을 우롱하면서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다.

리명박역도는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규탄하고 대북정책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발치자 얼토당토않게 《원칙을 견지해왔다》느니, 《바른길로 가고있다》느니, 《더디지만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가고있다》느니 하고 변명하는가 하면 피뢰통일부 장관 현인택을 비롯한 수하졸개들 역시 《지방선거결과와는 상관없이 대북정책기조를 유지》할것이며 《흔들림없이 대처해나갈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역적도당은 결국 이번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하고도 꼬물만치도 죄책감을 느끼는것이 없으며 사대매국과 반통일, 반민족의 길로 계속 나가려는 흉악한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것이다.

피뢰역적패당의 망발은 지금 만사람의 경악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피뢰패당의 말대로 한다면 지금의 대결과 전쟁국면이 《정상적인 궤도》이고 《남북관계가 바로 서는것》이라는것인데 이 얼마나 오만무도하고 어처구니없는 독선적망발인가.

리명박패당이 최근 《원칙고수》를 더욱 떠들고있는것은 저들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죄행을 가리우고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차스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피뢰패당의 《원칙고수》론은 그 내용과 본질, 목적에 있어서 극히 엉터리없는 사이비궤변이며 매우 불순한 반통일대결론이다.

피뢰패당이 집권후 지금까지 북남관계에서 고수해왔다는 《원칙》들이라는것을 보면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하며 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하며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는것 등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문제로 되는것은 북남관계를 미국과의 관계에 복종시킨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일뿐아니라 북남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견해와 관점도 바로 서있지 않은 극히 유해로운 사대매국적발상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면서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은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는것이다.

우방이나 동맹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조국통일문제보다 더 중요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북남관계의 우위에 절대로 놓일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보수패당은 집권하자마자 《한미관계를 소홀히 한것이 이전 정권의 최대의 과오이고 실책》이라고 떠들면서 《한미관계우선론》을 내들고 미국과의 관계를 《국정》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총적인 목표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속에서 다루어나가겠다》고 공언하면서 《한미동맹관계강화는 남북관계증진에 기여할것》이라는 넉두리도 서슴없이 내뱉았다.

도대체 우리 나라를 분렬시킨 장본인이고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외세가 어떻게 동족보다 중시될수 있으며 외세와의 관계강화가 어떻게 북남관계에 기여할수 있단말인가.

지나온 분렬의 력사는 민족문제에 외세를 끌어들이고 외세가 개입할 때마다 북남관계가 악화되고 긴장이 격화되여 전쟁위기까지 터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되여 북남사이에 통일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남조선에 《유신독재체제》를 구축하여 그에 찬물을 끼얹은것도 외세이며 1991년 《북남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였을 때 도발적인 북침핵전쟁소동으로 그것을 일거에 물거품이 되게 만든것도 다름아닌 외세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였을 때에는 미국과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자를 워싱톤에 불러들여 온갖 수모를 다하였으며 10.4선언에 수표한 남조선당국자에 대해서는 《반미분자》의 딱지를 붙여 로골적으로 랭대하고 질시, 박해하여 비명횡사케 한 장본인도 외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패당은 미국을 구세주처럼 여기면서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민족의 리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을 모두 미국상전에게 들고가 청탁놀음을 벌리고있다.

피뢰패당은 이번 함선침몰사건에 대해서도 《북의 소행》으로 날조한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다가 그 모략적정체가 드러나 내외의 웃음거리가 되자 미국과 야합하여 유엔무대에까지 끌고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미친듯이 매달리였으며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계속 내맡기는 피뢰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놀음까지 벌리였다.

리명박역도는 그렇게 하고도 수치를 느끼기는 고사하고 《이게 바로 동맹관계》라고 하면서 상전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추태까지 부리였다.

피뢰패당이 《한미관계우선론》에 매달리고있는것은 결국 남조선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로 내맡기며 공화국북반부에까지 그것을 확대해보려는데 그 속심이 있다.

력대 피뢰통치배들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떠들지 않은 자 없지만 리명박역도와 같이 남조선은 물론 온 민족을 외세에 송두리채 내맡기려고 미쳐날뛰는 추악한 친미사대매국노는 없다.

모든 사실들은 피뢰패당의 《원칙고수》론이 남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우리 민족을 외세의 희생물로 팔아먹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대망국론이고 가장 너절한 노예굴종론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북남관계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원칙》으로 내들고있는것을 보아도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여있는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며 핵문제해결을 위해 선후차가 무엇인지도 가려보지 못하는 적반하장의 억지주장이며 민족을 외세의 핵제물로 섬겨바치는 또 하나의 반민족적궤변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조선반도핵문제는 미국의 비법적인 핵무기반입과 북침핵전쟁책동에 의해 산생된 문제로서 그것은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할 문제이지 북남사이에서 취급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남조선을 미국의 핵무기고로 통채로 내맡기고 외세의 북침핵전쟁책동에 같이 춤을 추어왔으며 군사적으로 아무런 실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피뢰패당은 애당초 핵문제론의에 간참할 체면도 자격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역적패당은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없이는 남북관계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공언하면서 얼토당토않게 《핵포기》를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까지 내세우고있다.

피뢰들이 북핵문제를 거드는것은 우리의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기어이 제거하고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핵전쟁책동에 더욱 더 매달려보려는 가소로운 수작이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우리 공화국의 핵억제력의 보유가 북남군사적균형은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적규모에서 력학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하면서 그앞에 전률하고있다.

미국이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있는것은 우리의 핵억제력이 무섭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지금 미국과 피뢰들은 우리 공화국의 핵억제력을 말살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피뢰들이 북핵위협이요 뭐요 하지만 그것은 어처구니없는 랑설이다.

인류를 수백번이나 몰살시킬수 있는 천문학적수자의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비호두둔하고 《핵확장억제력》이니 뭐니 하며 미국의 핵우산에 더욱 깊숙이 기여들면서 미국의 침략에 대처한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해 시비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결국 피뢰패당이 우리의 핵억제력을 악랄하게 물고늘어지는것은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며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원칙고수》론이 용납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북남관계의 《원칙》으로 내들고있는것도 문제이다.

피뢰보수패당이 6.15이후 줄기차게 전진해온 북남관계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하고있는것은 그자체가 민족의 통일념원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피뢰패당의 목적은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6.15이후 북남사이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짓밟으며 북남관계를 파거 대결의 시대로 되돌려놓자는데 있다.

리명박패당은 온 겨레와 전세계의 전폭적인 지지환영을 받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해 《북의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하면서 부정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대해서는 그 무슨 《폐쇄적》이니, 《배타적》이니, 《시대착오적》이니 하면서 거부하였다.

대화와 협력사업은 《끌려다니기》니, 《퍼주기》니 뭐니 하며 차단하고 민간단체들사이의 래왕과 접촉, 협력사업마저 깡그리 끊어놓았으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중단과 위기에 몰아넣었다.

북과 남사이의 모든 련계가 단절되고 군사적대결은 극도로 첨예화되고있으며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일대에는 지난 수년간 사라졌던 대북심리전확성기들이 다시 설치되여 금시 악선전의 나발을 불어대려 하고있다.

오늘날에 와서 6.15가 남긴 혼적들은 거의나 찾아볼수 없게 되였으며 북남관계는 말그대로 폐허가 되였다.

피뢰패당은 지난 시기 북을 동족으로 대한것도 잘못이라고 하면서 《주적개념》을 부활시키고있는가 하면 북을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궁극적목표》로 해야 한다고 력설하고있다.

그들은 이를 위해 그 무슨 《급변사태》망상에 사로잡혀 반공화국심리모략전과 파피전복음모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가 하면 《통일대계탐색연구》니, 《부흥계획》이니 하는 극히 도발적인 불순한 모략각본에 매달리는 한편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특히 미국과 결탁하여 함선침몰사건과 같은 터무니없는 반공화국광대극들을 날조하고 《단호한 대응》과 《전쟁불사》, 《선제타격》까지 줴치며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리명박패당이 떠드는 《원칙고수》론이 6.15를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뒤집어엎으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매우 위험한 반민족적궤변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도 《바로선 남북관계》이고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선 남북관계》라고 줴쳐대면서 《원칙고수》를 내드는 리명박패당같은 불한당, 천하망종을 그대로 둘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우리 민족이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공동의 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다.

그 길에 온 민족이 그처럼 바라는 평화도 있고 통일도 있고 무궁번영도 있다.

피뢰패당이 떠드는 《원칙고수》론은 전쟁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역적패당이 반통일적인 《원칙고수》의 길로 계속 가겠다고 하는것은 결국 무덤길을 재촉하는것으로 될뿐이다.

남조선당국은 범죄적인 《원칙고수》론으로 얻을것은 파멸밖에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론 평 원

사대매국노 리명박역적패당을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넣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2일 《사대매국노 리명박역적패당을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넣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얼마전 카나다를 행각한 리명박역도가 오바마를 만나 그 무슨 《안보》환경변화니 뭐니 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2015년까지 연기해줄것을 간청하여 합의하는 놀음을 벌린데 대해 언급하고 정말 역적이라도 이런 해괴망측한 역적은 조선민족사에 둘도 없다고 단죄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조선전쟁때인 1950년 7월 리승만역도가 피뢰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섬겨바침으로써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지배하에 더 깊숙이 밀어넣고 미국의 전쟁하수인으로 북침전쟁에 적극 나섰다고 성명은 밝혔다.

오늘 리명박역적패당이 리승만역도의 전철을 밟고있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리명박역적패당이 이전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기로 한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그것을 뒤집어엎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해왔으며 이번에 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미국상전에게 집요하게 구걸하여 끝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연기시키는 망동을 감행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미국과 피뢰패당의 추악한 공모결탁으로 이루어진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놀음을 위험천만한 현 사태를 더욱 극단에로 몰아가며 공화국과의 전면전쟁도 불사하려는 극히 엄중한 도발로 락인하고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전체 조선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외세와 야합하여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리명박역적패당을 력사의 무대에서 깡그리 쓸어버리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이 피뢰역적패당의 범죄적인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놀음을 견결히 반대배격하며 사대매국역적들을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넣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중국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

【베이징 7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8일 기자회견에서 조선서해해상에서의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정부의 립장을 공식 밝혔다.

그는 자기 나라는 외국군함과 비행기가 중국과 가까운 수역에서 국가의 안전리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참가하는것을 견결히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유관측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립장은 일관하고 명백하며 이미 정부는 유관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였다고 말하였다.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은 함선침몰사건의 책임을 기어코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그것을 구실로 외세의 힘을 빌어 우리를 모해압살하기 위해 이른바 《〈천안〉 호외교》라는것을 광신적으로 벌리고있다.

피뢰들이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한 주되는 목적은 외세와의 야합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제재와 압력의 도수를 더한층 높여 북침야망을 실현하는것이다. 그것이 지금 날로 명백히 립증되고있다.

보수패당은 사건초기부터 그 무슨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니 뭐니 하면서 24명에 달하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국제합동조사단》이라는것을 《민군합동조사단》에 망라시키였다. 이자체가 《천안》호침몰사건을 국제화하려는 계획적인 책동이였다. 이렇게 반공화국모략소동의 막을 연 피뢰들은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 《북조선외에는 다른 용의자가 없다.》, 《침몰원인이 북조선의 어뢰공격에 있다.》고 고아대면서 날조된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라고 떠들었다. 그 《대가》라는것이 피뢰들이 함선침몰사건을 유엔에 끌고감으로써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와 압력을 강화하여 우리 공화국을 봉쇄, 압살하려는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침몰》하는 《천안》호외교

지난 5월 리명박역도가 《대국민담화》라는데서 함선침몰사건이 《북의 도발》이라고 피대를 돋구면서 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하겠다는 도발적인 망발을 늘어놓은데 이어 보수패거리들이 《완전한 무기금수조치의 도입》, 《자산동결과 려행금지의 대상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반공화국 《추가제재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떠들어댄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피뢰들은 발바닥에 불이 일도록 미일상전들을 찾아다니며 반공화국제재와 《공동보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협력》 등을 적극 구걸하고있다.

얼마전에는 그 무슨 《3개국수뇌자회담》이니, 《쌍무회담》이니 하는것들을 뻔질나게 벌려놓고 《대북제재동참》과 《대조선포위망구축》에 대한 협력을 청탁하였으며 유럽나라들까지 돌아치며 그 무슨 《전방위외교》, 《설득외교》를 벌리였다. 30여개 나라의 남조선주재 외국대사들을 《외교통상부》에 불러들여 그 무슨 《증거자료》를 보여준다 어쩐다 하며 분주탕도 피웠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이에 대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안》 채택을 위한 《지지와 리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평하였다.

이어 피뢰당국은 지난 6월 5일 그 무슨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운운하며 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줄것을 요청하는 그 무슨 《서한》이라는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국제사회의 압박을 조성할 효과적방안》을 마련한다고 떠들며 시작한 피뢰들의 이른바 《〈천안〉 호외교》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피뢰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반공화국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흉계밑에 《민군합동조사단》의 어중이떠중이들까지 유엔에 파견하여 날조된 《증거자료》들과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벌리는 해괴망측한 소동까지 벌려놓았다.

그러나 보수패당이 들고나온 《증거자료》와 《조사결과》라는것은 공정한 국제여론의 랭대를 받았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피뢰들이 《결정적증거》니 뭐니 하며 내세운 《어뢰추진체》, 《1번》 글씨, 알루미니움산화물, 《물기둥》 따위들은 그 어떤 객관성도 과학성도 없는것으로서 국제사회는 물론 남조선내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있는 조작된 모략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대한 반론이 남조선과 해외에서 계속 쏟아져나오고있다.

함선침몰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전면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외의 목소리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유엔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높아가자 미국도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상전들을 믿고 기세등등해서 《강력한 대북결의안채택》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던 피뢰들은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미국과의 〈천안〉호공조에 이상기류가 나타났다.》, 《강경일변도의 〈천안〉호외교가 미국의 수위조절로 진퇴량난에 빠지였다.》, 《침몰하는 〈천안〉호외교》라고 평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반공화국 《제재결의안》 채택가능성은 거의나 없다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외세를 등에 업고 기어이 동족을 해칠 야망을 품고있는 보수패당은 이러한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외세의 옷섶에 더욱 바싹 달라붙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북결의안》 채택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를 범죄시하는 《의장성명》이라도 발표하여 국제적인 반공화국적대분위기를 어떻게 하나 조성해보자는것이 피뢰들의 타산이다. 이로부터 보수패당은 또다시 미일상전들과 기타 주변나라들을 분주히 찾아다니며 별의별 구걸질을 다하고있다. 얼마전 카나다에서 진행된 어느 한 국제회의에 리명박역도가 나타나 참가국대표들에게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한 유엔에서의 《협조》를 애걸한것도 그 한 실례이다.

남조선피뢰들이 함선침몰사건을 걸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감행하고있는 동족대결소동은 자주의식이라는것은 꼬물만큼도 없이 사대와 외세의존에 환장한 추악한 역적배, 외세의 지지와 후원이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는 더러운 매국노로서의 리명박패당의 정체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난 7월 5일 남조선의 한 신문은 유엔에서의 《대북제재》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있다고 하면서 당국이 《언제까지 출구도 퇴로도 보이지 않는 그 릇된 외교전략을 고집할것인지 답답하다. 이제라도 궤도수정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썼다.

역적패당이 내외여론의 규탄을 외면하면서 외세를 믿고 우리를 어째보려고 발악하고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피뢰들이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는 《〈천안〉 호외교》는 종국적으로 파탄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심 철 영

보답의 마음안고 걷는 길

조선민예련합상사 민예상점 정영숙동무

지난해 8월 어느날이였다.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가는 아들을 바래워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정영숙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방금전 자기의 두손을 꼭 잡고 영예군인들을 부탁하던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렸다.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면서도 영예군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것인가.

그의 눈앞으로 추억의 물결이 파도쳐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의 일분일초를 충성으로 이어가며 아름다운 자욱을 남기는 사람이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인간입니다.》

정영숙동무가 원군길을 걷기 시작한것은 처녀시절부터였다.

영예군인들을 위해 거둡거둡 취해지는 당과 국가의 은정넘치는 조치에 접할 때마다 정영숙동무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기가 일하는 작업반에서 《우리 영예군인가정수첩》을 만들어 리용할것을 발기하고 영예군인들을 돕기 위한 사업에 앞장섰다.

그는 작업반원들과 함께 영예군인들의 일터를 찾아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벌리고 이동판매도 하였으며 밤이 깊도록 영예군인들의 집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마음을 썼다.

가정을 이룬 후에도 영예군인들을 위해 그가 걷는 길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그는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에도 발벗고나섰다. 해방전 그의 어머니는 갖은 천대와 멸시속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여서야 비로소 난생처음 자기 집, 자기 일자리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되였다.

조국의 품이 없었다면 정영숙동무가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로동당원으로, 상업봉사기관의 봉사일군으로 어엿하게 자란 오늘을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을 떠나서는 가정도 행복도 없음을 말해주는 어머니의 피눈물나는 과거는 그의 원군길을 재촉케 하였다.

그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순결한 마음을 원군길에 수놓아갔다.

태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하여 군인건설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는 어디든지 달려가 일도 함께 하고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도 넘겨주었다.

어머니당은 그가 걷는 애국의 길을 걸음걸음 따뜻이 이끌어주었다.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 그의 가슴속에 솟구친 격정은 얼마나 컸던가.

(오늘의 이 영광을 잊지 않고 한생토록 보답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날의 맹세는 보람찬 삶의 길로 그를 더욱 힘있게 떠밀었다.

그는 중요대상건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 진행하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더 잘 꾸리기 위한 건설의 나날에도, 백두산지구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던 나날에도 그는 건설장마다에 물심량면의 지성을 바치였다. 맡은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 원호사업과 지원사업을 하느라 힘들 때가 많았지만 보답의 길을 걷는다는 긍지로 그의 가슴은 설레이기만 하였다.

언제인가 그가 급병에 걸려 쓰러졌을 때였다. 그때 그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그날이 바로 락랑구역 충성1동에 살고있는 한 영예군인의 생일이였던것이다.

영예군인의 모습이 눈에 어려와 자리에 누워있기 괴로웠다.

정영숙동무는 끝내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아들과 함께 영예군인의 집을 향해 떠났다.

얼마후 영예군인의 집에 들어선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며칠전 출장을 떠났던 남편이 먼저 와있었던것이다.

애국의 길에서 언제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여준 미더운 혁명동지…

그날 영예군인은 자기를 위해 바치는 그들의 진정에 어깨를 들먹이였다.

정영숙동무에게는 소중히 간수하고있는 여러개의 수첩들이 있다.

수첩의 갈피마다에는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해 기울인 그의 마음과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20여년, 그 나날 정영숙동무는 여러차례에 걸쳐 경애하는 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감사를 받아안았다. …

보람찬 인생길을 돌이켜본 그는 아들이 떠나간 곳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이였다.

(이 어머니는 한생의 끝까지 참된 보답의 길을 걸어가련다.)

리 경 일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안고 원호사업을 잘해간다.
—원산시 상동 12인민반 송순희동무의 가정에서—
최 충 성 찍음

공민의 첫째가는 의무

고풍군 방성리에 살고있는 리윤래, 김순옥부부의 집에는 3개의 조선인민군입대증과 군복입은 자식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걸려있다.

이들부부는 자식들에게 총대의 귀중함과 조국수호정신을 깊이 새겨주었고 중학교를 졸업하는 차례로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냈다.

한생에 잊지 못할 귀중한 청춘시절을 총대와 함께 긍지높이 보낸 맏딸이 인민군대에서 제대된 후 지금 두 아들이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있다.

조국을 보위하는것을 선군시대 공민의 첫째가는 의무로 여기고있는 이들부부는 사랑스러운 막내도 중학교를 졸업하면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울 결심이다.

로농통신원 안 상 희

혜산신발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

다시 세운 전투목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어느날 현장을 돌아보던 지배인 유영화, 초급당비서 김명호동무들은 한동안 못박힌듯 걸음을 멈추웠다.

재봉2직장 직장장 김혜숙동무가 재봉공들에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우리가 지난날의 성과에 만족해서야 되겠는가, 한사람이 두몫, 세몫씩 해제낀다면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좋은 신발이 더 팡팡 생산될것이라고 하는 그의 목소리는 신심에 넘쳐있었다.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신발을 안겨주시려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우리 장군님께서 외국방문의 길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우리들의 일터를 찾아주시였겠습니까.》

그러자 재봉공 김정화동무를 비롯한 로동자들이 저저마다 종전보다 더 많은 공정을 맡아하겠다고 결의해나서는것이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그것은 다만 재봉2직장 로동자들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이전에는 2개의 생산공정을 맡아하였다면 지금은 3개이상의 생산공정을 맡아할 결심밑에 새 공정을 배우고 하루빨리 손에 익히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 재봉1직장의 재봉공들, 더 맵시있고 질좋은 신발을 만들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고있는 재단종합작업반의 재단사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 뜨겁게 가닿게 하자.

그것이였다.

낮과 밤을 잊다싶이 하며 신발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필요한 원료, 자재를 자체로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종업원들, 그들의 가슴속에 불타는 지향은 다름아닌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대로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한 생각이였다.

그날 지배인과 초급당비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뜻깊은 10월까지의 전투목표를 새롭게 세우자고 토의하였다.

저녁무렵 긴급히 열린 공장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전투목표가 세워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하려는 종업원들의 불같은 마음과 전투적기상이 그 전투목표에 그대로 어려있었다.

본사기자 김 호 혁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주체의 태양, 불세출의 위인

그리움의 대하가 온 세계에 뜨겁게 굽이쳐흐르는 7월, 이즈음 진보적 인민들은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더더욱 가슴을 끓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이지닐수 있는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력사의 갈피에는 수많은 위인, 령도자들이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처럼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력, 덕성을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그런 위인, 령도자는 동서고금에 없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인류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본사기자 조 성 철
라 명 성

그 우 한 꽃 향 기 속 에 모 시 고 싶 어

그 윽 한 꽃 향 기 가 만수대언덕에 오르는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후덥게 하여주고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은 언제나 꽃바다를 이루고있다. 여기에는 외국의 벗들이 진정한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도 많다. 우리나라에 오는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부터 찾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언제나 그윽한 꽃향기속에 모시고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세계 여러나라 당과 국가, 정부 수반들, 고위급정치인들, 각계 인사들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바구니, 꽃다발, 꽃송이를 그이의 동상에 진정하고있다.

몇해전 어느날 깊은 밤,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를 든 한 외국인이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드리고 수령님을 경모하여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그가 바로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일군이였다.

그가 평양에 도착한것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깊은 밤이였다. 밤은 깊었어도 그는 만수대언덕에 올라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는것을 미룰수가 없었다. 그는 우리 나라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인품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자기로서는 이 밤을 절대로 넘길수 없다고 절절히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 달음으로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를 진정한 후에야 숙소로 향하였던것이다.

어찌 그 한사람뿐이랴.

중국의 한 대표단 성원들은 태양이 타는듯 한 붉은 꽃과 수정같이 깨끗한 흰 꽃으로 꽃바구니를 정성스레 만들어 가지고와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진정하였다.

어느해인가 모잠비끄내무상은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주변에 언제나 향기로운 꽃들이 활짝 피여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꽃종자를 선물로 드리였다.

몸은 비록 만수대언덕에 오르지 못하지만 자기의 위인 흠모의 마음을 담은 꽃바구니를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진정해줄것을 부탁한 외국의 벗들도 많다.

꽃바구니, 꽃다발, 꽃송이를 안고오는 외국의 벗들의 꽃물결은 만수대언덕뿐아니라 만경대에도 끝없이 흐르고있다.

몇해전 유럽의 어느 한 나라 인사들이 우리 나라 방문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一조선에 가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하게 되겠는데 준비를 특별히 잘해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아름다운 꽃을 준비해가지고 조선을 방문하여 만경대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토의에 토의를 거듭하던 끝에 그들은 사철 피여나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10종류의 장미를 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들은 여러 도시와 농촌들을 찾아다니면서 끝내 10가지 색갈의 장미 100그루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장미를 가지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주체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깊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 옮겨심었다.

이들만이 아니다. 만경대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다 피여나는 뜻깊은 력사적인 곳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정성껏 키워온 만수국을 비롯하여 9종의 꽃씨를 만경대에 보내온 외국의 학생들, 자기 나라에서 가장 희귀하고 향기로운 나무와 꽃씨들을 구하여 보내여온 레바논, 부르끼나파쏘, 탄자니아, 수리아, 그리스, 이딸리아, 네팔의 진보적 인사들과 인민들…

이란의 한 인사는 《만경대의 꽃과 나무들도 다 아름답지만 변함없는 충정과 흠모의 정을 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아름답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따르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의 분출이다.

자주위업의 전진과 승리의 라침판

항행의 길에 오르는 배에는 언제나 라침판이 있다. 라침판이 없으면 배는 자기의 항로에서 벗어나 종착점에 가닿지 못하게 된다. 혁명도 역시 그렇다. 혁명의 길은 복잡다단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어렵고 장기성을 띤다.

그런것만큼 옳바른 라침판이 있어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자기 발전의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며 승리를 안아올수 있다. 바로 이 력사의 라침판문제는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천리혜안의 선견지명, 탁월한 령도력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자주시대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인민대중의 운명과 자주위업에 대한 력사적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니시고 옳바른 길을 찾지 못하여 암중모색하던 인민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심어주시고 운명개척의 참다운 라침판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학적인 탐구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사상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고 자주시대의 리정표를 인류에게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탁월한 사상리론을 제시하신것은 인류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실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자각하게 되였으며 가장 정확한 자주의 라침판을 가지고 자기 운명과 력사를 자주적으로 개척하고 세계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세계혁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국제정세추이를 빛나는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명철하게 분석판단하시고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진로를 명시하시여 세계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 락관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주체37(1948)년 3월은 우리 조국의 력사뿐아니라 인류의 자주위업의 력사에 뜻깊게 기록되여있다. 이 시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내외의 관심과 주목속에서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내를 진감하는 열화같은 박수갈채를 받으시며 대회의 단상에 오르시여 열정에 넘치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보고에서 당시 국제정세에서 일어나고있는 커다란 변화의 특징에 대하여 명철하게 분석하시면서 세계는 력사가 가리키는 길, 인민들이 승리하는 길로 나아간다고, 세계는 력사를 창조하는 주인인 인민들의 손에 의해 움직이며 그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고 단언하시였다.

주옥같은 명제로 일관된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승국》으로 둔갑한 후 세계가 저들의 뜻대로 움직이고있는것처럼 궤변을 늘어놓던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철추를 내리고 세계인민들에게 혁명의 참된 진리를 안겨주었다.

세계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보고를 통하여 력사발전, 세계혁명운동발전의 법칙을 새롭게 체득하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뛰여난 사상리론적예지와 위인상에 탄복하였다.

현시대의 특징과 기본추세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신분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이시며 인류의 자주위업, 세계혁명에서 제기되는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완벽한 해답을 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을 나라와 민족의 생명, 인류공동의 생명으로 규정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권을 행사하고 자주에로 나아가는 시대적흐름을 힘있게 떠밀어나감으로써 만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수 있다는 철리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하여 바치신 로고와 심혈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다른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친선단결의 길,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그러한 외국의 벗들속에는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전 대통령 린든 포베스 쌤프슨 번함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귀중한 진리를 받아안은 그는 자주의 길만이 살길이며 세계가 나아갈 길이라는것을 확신한 사람이였다. 하기에 그는 운명의 최후순간에 위대한 수령님을 《인류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였던것이다.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세계의 자주화의 진로를 명시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그 실현을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만민이 공인하는바와 같이 세계자주화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자주의 리정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전진과 승리의 라침판이 있기에 세계가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며 력사발전이 다그쳐지고있는것이다.

정녕 인류에게 자주위업의 끊임없는 전진과 승리의 귀중한 라침판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언제나 뵙고싶은 심정을 담아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우러르며 자주의 한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자주적인 새 세계창조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수많은 나라 정당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자기 당청사에 정중히 모신것은 그들의 높은 위인흠모심의 발현이다.

방글라데슈로동당,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인디아공산당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 정당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자기 당청사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자기 당청사에 모시면서 베르로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거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흠모 그리고 그이의 사상과업적을 빛내이려는 결의를 반영하여 그이의 존귀하신 영상을 전선청사에 모시였다. 그이의 영상은 우리 일군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게 될것이다. 우리 청사를 찾는 사람들, 크고작은 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일군들이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며 그이의 사상과 업적을 회고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할 결의를 굳게 다지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모시는 사업은 정당들뿐아니라 국제기구들과 사회단체, 연구조직, 학교를 비롯한 세계곳곳의 단위들에서도 진행되고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당수)는 당청사 회의실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는 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조선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이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세계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투쟁의 귀감이시였고 희망의 등대이시였다.》

기네에서는 서아프리카의 농업발전과 자유와 독립을 위한 기네인민들의 투쟁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못 잊어하는 아프리카인민들의 념원에 따라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란사나 꽁떼대통령과 상봉하시는 대형사진을 모시였다. 몽골 터브도 알딴볼라그군 10년제중학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건립하였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슈, 인디아, 말리, 짐바브웨, 부르끼나파쏘, 나이제리아, 메히꼬, 가이아나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정당, 단체, 기관들과 각계 인사들 그리고 국제기구들은 절세위인의 초상화를 사무실과 회의실, 강의실, 도서관, 가정들 등에 모시였다.

베루의 한 인사는 자기 집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걸출한 수령이시며 우리 가정의 친근한 어버이이시다, 나는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던 영광의 그 나날들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며 그이를 인류의 수령으로, 친근한 어버이로 영원히 모실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인류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언제나 가까이에서 뵙고싶어하는 뜨거운 심정은 그의 가정만이 아니다.

오늘 국제사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을 모시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을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따르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열화같은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사상리론의 거장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인류를 위해 이룩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이며 주체사상은 세계 인류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 후손만대 길이 전할 최상 최대의 유산이다.》(영국 신문 《에이쉬언 타임스》 정치주필)

《주체사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요구와 념원을 반영한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세계 진보적정당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다.》(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서기장)

세계정치원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신 김일성주석은 20세기의 정치사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세계정치의 원로이시였다.》(마다가스까르련대성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성주석의 모습은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숭고한 국제주의의 귀감으로 간직되여있다. 김일성주석께서 다른 나라 인민들의 반제투쟁을 맨 앞장에서 도와주신 사실들은 20세기 정치사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겼다.》(기네라지오방송)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주석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조선을 해방하시였으며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그이는 조선땅우에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한평생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신 걸출한 수령이시다.》(에짚트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영생의 모습

세월이 흐를수록 만민이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달려가는 곳이 있다. 그곳은 금수산기념궁전이다.

언제나 태양의 모습으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외국의 벗들은 그이께서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고 또 찾으며 오래도록 발걸음을 뗄줄 모른다.

우리 함께 그들의 심장의 토로를 들어보자.

《김일성주석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그이께 경의를 표시하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주석께서는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을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그이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세계정치의 원로이시였다.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을 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기치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각하는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

인류의 자주위업,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다함없는 흠모심을 가지고 가슴뜨겁게 추억하고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는 김일성주석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가장 걸출한 수령,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생애는 20세기의 년대들에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긴 성스러운 력사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여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주석께서 이룩하신 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영원한 태양의 밝은 미소로 만민에게 자주적삶의 자양분을 심어주시며 래일에 대한 희망과 락관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열화같은 그리움과 경모의 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베루 리마, 오스트리아 윈에서는 련대성집회가,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영화감상회가 6월 24일과 25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베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사회혁명당, 공산당(붉은 조국),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베루위원회, 오스트리아로조련맹 좌익뽈럭 련방지도부, 윈에 있는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 핀란드조선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베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헤나로 레데스마 이스끼에따는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한 장본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전쟁에서 미제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살륙하였다.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정전후 오늘까지 사회주의조선을 타고앉으려는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는것은 조선이 세계사회주의의 보루,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빛을 뿌리고있으며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을 파란시키고있기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또다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책동하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이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날조극이라는것을 세계는 알고있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밑에 사회주의조선은 제국주의의 그 어떤 침략도 물리칠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을 마련하였다.

베루인민은 언제나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이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사회주의조선을 옹호하는 련대성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오스트리아로조련맹 좌익뽈럭 련방비서 울리베르 요니스 카이트는 6월 25일은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6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제는 전쟁기간 조선을 완전한 폐허로 만들고 수백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살인자, 범죄자이다.

미국과 리명박역도는 최근 《천안》호침몰사건을 날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의에 응해나서야 하며 남조선당국은 6.15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여야 한다.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 안띠 씨까 아호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범죄를 인정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또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의에 지체없이 응해나서야 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핀란드조선협회는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을 규탄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보다 적극화할것이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조선의 대답》이 상영되였다.

본사기자

봉쇄철회를 요구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이나씨오 룰라 다 씰바가 6월 30일 한 외교석상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를 당장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외교관계를 단절할데 대해 경고

뛰르끼예외무상 아흐메트 다부토글루가 4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당국이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로 가던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속하였던 여러명의 뛰르끼예인을 살해한데 대해 사죄를 하든가 아니면 공정한 국제적조사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인정할것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가 단절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뛰르끼예의 요구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고립과정은 계속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반공화국악법 실시

일본당국이 4일부터 우리 나라로 드나드는 외국선박들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행하는것을 허용하는 악법인 특별조치법을 정식 실시하는데 착수하였다.

이 법에 따라 일본은 자기 나라 령해내에서만 하던 외국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공해상에서도 하게 된다 한다.

위조화폐 성행, 재정위기, 청년실업률

— 미국에서 위조화폐가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4일 미국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는 당국의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9월말에 끝난 2009회계년도에 1억 8 200여만US$어치의 위조화폐가 류통과정에 적발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회계년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융위기의 후과로 재정형편이 계속 악화되고있다. 1일 주당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현재 주의 예산적자가 191억US$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 이딸리아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실업자로 전락되여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통계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5월에 청년실업률이 29.2%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년실업률은 2004년이래 최고를 기록하였다 한다.

본사기자

무더위피해

유럽나라들에서 최근 심한 무더위로 피해를 입고있다.

6일현재 에스빠냐, 뽀르뚜갈, 벨지끄 등 나라들에서 최고기온이 40℃이상을 기록하였으며 프랑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로씨야에서는 기온이 거의 40℃에 이르렀다. 로씨야에서는 무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280여명에 달하였다. 이 나라들에서 앞으로 무더위가 한동안 계속될것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수뇌자회의 진행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수뇌자회의가 3일 베르데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공동체 성원국 국가수반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성원국들사이의 협조를 발전시키며 기구의 활동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일미사이의 새로운 핵밀약범죄사실 판명

최근 일본과 미국정부사이의 핵밀약범죄에 대한 새로운 사실자료가 폭로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1일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립공문서관에서 입수한 미국무성의 내부기밀문서를 공개하면서 1961년 당시 일본이 미국정부와 핵밀약에 관해 비밀리에 동의한 사실이 새롭게 판명되였다고 전하였다.

문서에 따르면 《일미안전보장조약》이 개정된지 1년후인 1961년 6월 미국을 행각한 일본수상이 일본에 드나드는 미군함선과 비행기에 탑재된 핵무기에 대해 사전협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것을 비밀리에 동의하였다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협조

베네수엘라와 수리아가 6월 27일 농업, 무역,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쌍무협조에 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협정들은 수리아대통령의 베네수엘라방문과정에 조인되였다.

이보다 앞서 6월 26일 꾸바와 져메이커는 두 나라 국회들사이의 교류와 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뎅구열피해 확대

◎ 꼬스따 리까에서 뎅구열이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6월 7일 발표된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올해 첫 5개월동안 나라에서 6 521명의 뎅구열환자가 등록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배 더 많은것이라 한다.

◎ 온두라스에서 뎅구열이 계속 퍼져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6월 25일 이 나라 보건성은 올해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뎅구열환자수가 1만 200명으로 늘어나고 그중 13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있다 한다.

본사기자

팔레스티나에서 반이스라엘시위

ㄱ-01121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